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신 정부 출범에 우려... “성경적 가치 법률 흔들릴 수 있다”



헝가리에서 친(親)유럽 성향의 페테르 머저르 정부가 출범하면서, 현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가족·성윤리 정책과 ‘성경적 가치’에 기반한 법률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영향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점에 보수 기독교계가 긴장하고 있다.

에반젤리컬포커스에 따르면, 16년간 헝가리를 이끌어 온 빅토르 오르반 전 총리가 최근 총선에서 패배했다. 새 총리 머저르는 과거 오르반의 피데스(Fidesz)당 소속이었으나 이후 결별해 티서(Tisza: 존중과 자유)당을 창당했고, 개혁과 부패 척결을 내세워 야

권의 지지를 얻었다.

머저르는 보수 성향이지만 오르반보다 EU와의 협력에 더 개방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오르반은 재임 기간 기독교 문화와 가족 중심 가치를 강조해 왔다. 그는 결혼을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합”으로 규정하고, “어머니는 여성이고 아버지는 남성”이라는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을 추진했다.

또 오르반 정부는 LGBTQ 및 성별 이념 확산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며 유럽 보수 진영과 기독교계의 지지를 받았다. 그는 EU의 진보 성향 정책과 ‘워크(woke)’ 문화에 반대하며 헝가리의 기독교 정체성을 강조해 왔다. 반면 비판자들은 그를 권위주의적 지도자라고 평가해 왔다.

정권 교체 이후 헝가리 복음주의권 내부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헝가리복음주의연맹 회장 이슈트반 호르바트는 일부는 새 정부의 변화를 기대하지만, 상당수는 기독교인들의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우려의 배경에는 EU의 지속적인 압박이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헝가리에 기본권 확대와 가족 가치 관련 정책 완화를 요구해 왔다. 호르바트는 “EU와 유럽국민당(EPP)의 압력 아래 성경적 가치에 기반한 법률들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어메리칸싱커는 머저르 정부가 공교육 분야에 LGBTQ 친화 성향 인사들을 임명하고, 헝가리 최초의 24시간 LGBTQ 방송 채널 승인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보수 기독교계는 기존 가족·아동보호 정책이 빠르게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로마서 8:6-7)

하나님, 헝가리에 친유럽 성향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여 반성경적인 정책과 법률이 강화될 수 있는 상황을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이 정해 놓으신 질서를 거스르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육신의 삶의 최후가 사망임을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완악함에서 돌이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싸우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예수교회를 통해 헝가리에 주의 나라가 부흥케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한국 경기도 고교, 성정체성 수업자료 논란… “학생 성혼란 조장하는 교육, 발본색원 해야” 확대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회문제탐구’ 수업 자료에 다양한 성정체성 개념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교회연론회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시스젠더, 젠더퀴어, 에이젠더, 트랜스젠더, 젠더플루이드 등 여러 성정체성 개념이 제시됐고, 학생들이 각각의 정의를 연결하는 활동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동성 친구에게 끌리는 학생의 사례를 제시하며 ‘커밍아웃’에 대한 찬반 의견을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교회연론회는 15일 논평에서 “성은 남성과 여성뿐”이라며 해당 교육이 학생들에게 성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을 빌미로 학생들의 성정체성을 혼드는 현장”이라며 공교육의 방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연론회는 교육이 바른 인성과 지식을 기르는 체계적 활동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부모 항의 이후 경기도교육청이 진상 조사와 관리·감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또 “잘못된 교육은 발본색원해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학교와 교사들이 학생들의 바른 인성과 인품을 세우는 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결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베드로후서 3:3,11-12)

하나님, 말세에 교회를 조롱하듯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게 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더욱 이끌려는 사탄의 악한 간계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주께서 정하신 거룩한 성을 죄인의 원함대로 정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인간의 탐욕과 교만함을 꺾으신 십자가 복음을 다음세대 가운데 선포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온 이때, 복음의 힘을 입은 다음세대들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주님 나라의 군사들로 세우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게 하옵소서.

▲ 스리랑카, 국제 온라인 사기 조직 새 거점 부상

스리랑카가 국제 온라인 사기 조직들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17일 뉴스1이 AFP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기존 범죄 거점이었던 캄보디아와 미얀마에서 강력한 단속이 이어지자 사기 조직들이 스리랑카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비교적 느슨한 비자 제도와 안정적인 고속 인터넷 환경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스리랑카 당국은 올해 들어 사이버 범죄 연루 혐의로 체포된 외국인이 1,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체포 건수인 430명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체포된 외국인들의 주요 국적은 중국, 베트남, 인도 등으로 파악됐다. 범죄 조직들은 관광비자를 이용해 입국한 뒤 고급 빌라 등을 임대해 사기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기 수법은 로맨스 스캠, 가상자산 투자 사기, 불법 도박 플랫폼 운영 등으로 다양하다(출처: 복음기도신문).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신명기 31:12)

하나님, 비교적 느슨한 비자 제도를 틈타 국제 온라인 사기 조직들의 새로운 거점이 되고 있는 스리랑카를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강력한 단속을 피하여 스리랑카에 온 범죄 조직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도록 저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어 주님의 책망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죄를 모의하기 위하여 타국에 왔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죄악의 오만한 자리에서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교회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리라” 70대 개신교 선교사 실종돼… 수사 요청



멕시코 남부에서 복음 전도 활동을 하던 70대 개신교 선교사가 실종돼 국제 인권단체들이 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세계기독교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이하 CSW)에 따르면, 베니토 게바라 아르코스(Benito Guevara Arcos·79) 선교사는 지난 3월 31일(이하 현지시각) 멕시코 게레로주 산비센테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6주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CSW는 “그는 인근 오코티토 마을에서 산비센테로 이동해 성경을 배포하고 복음을 전하던 중이었다”고 전했다. 함께 머물던 교인이 그가 밤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자 수소문에 나섰다. 주민들에게서 “무장 괴한들이 그의 설교 활동에 문제를 제기한 뒤 그를 차량에 태워 어디론가 데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현지 관계자들은 “조직범죄 세력이 그의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당시 그는 공식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며칠 뒤 해당 조직은 “그 선교사를 4월 4일 아모힐레카 지역에서 풀어줬다”며 가족들에게 “그를 데려가라”고 통보했지만, 현장에 도착한 주민들과 기독교인들은 끝내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가족들은 “그가 휴대전화는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귀가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은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가족들은 4월 13일 게레로주 실종자수색위원회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이후 경찰 보호 아래 전단지를 배포하며 수색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지역 언론의 광범위한 보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사나 소재에 대한 확실한 정보는 나오지 않고 있다. 가족들은 범죄 조직의 보복을 우려해 검찰에 정식 고소를 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CSW의 옹호 책임자인 안나 리 스탕글(Anna Lee Stangl)은 “베니토 게바라 아르코스 선교사의 안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게레로주 및 연방 당국은 그의 강제 실종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멕시코 정부는 종교 지도자와 인권 옹호자들을 위협하는 조직범죄 세력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멕시코 내 강제 실종과 종교 지도자 대상 폭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발생했다. 미주인권위원회(IACHR)는 최근 보고서에서 “멕시코의 실종 사건이 지난 10년간 200% 이상 증가했다”며 “국가기관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 조직의 활동을 방치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국제 기독교 감시단체들은 “멕시코에서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마약 카르텔의 표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올해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는 최근 수년간 기독교인 대상 납치 및 공격 사건이 가장 많이 보고된 국가 가운데 하나로 기록됐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고린도 후서 7:6,13)

하나님, 6주가 넘는 시간동안 생사나 소재 파악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낙심 가운데 있을 베니토 선교사님의 가족과 교회를 선교사님의 안전한 귀환으로 위로하여 주십시오. 오랜 시간 멕시코 영혼들을 위해 성경을 배포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 땅의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공격 사건이 증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선교사들을 더욱 멕시코로 보내 주소서. 그리하여 죄악과 어두움이 가득한 그 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나이지리아, 남서부까지 테러 확산… 교사 참수 영상 공개 충격

나이지리아 남서부 오요주에서 무장 테러범들이 학교 3곳을 동시에 습격해 학생과 교사 등 46명을 납치하고, 납치 교사를 참수한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괴한들은 오토바이 8대를 타고 침례교 유치·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여러 학교를 연쇄 공격했으며, 총격 과정에서 부교감 1명과 오토바이 기사 1명이 숨졌다. 납치된 이들 가운데는 학생 39명과 교사 7명이 포함됐고, 학교장 레이철 알라무도 끌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무장괴한들이 학교에 들이닥치자마자 총격을 가하며 순식간에 여러 학교를 공격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납치된 교사 마이클 오에도쿤을 참수하는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지역 사회는 극심한 공포에 빠졌다.

사건 이후 오요주 주민들과 교사들은 도로를 봉쇄하며 정부의 즉각 대응을 규탄했다. 주 정부는 일부 지역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지만, 부모들은 이미 너무 늦었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최근 콰라·니제르·오요주를 잇는 산림 지대를 중심으로 무장세력 활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오토바이를 이용한 기습 이동, 학교 동시 공격, 숲을 통한 도주 등 이번 수법이 북부에서 활동해온 보코하람 계열 무장세력의 전술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오요주 사건이 발생한 직후 북동부 보르노주에서도 학생 약 40명이 추가로 납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교를 겨냥한 테러가 나이지리아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시편 123:1,3)

하나님, 기독교인을 향한 공격과 납치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가운데 국가에서 조차 이러한 박해를 묵인하는 답답한 상황에 놓인 성도들의 탄식을 굽어 살피주십시오.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된 자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주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눈을 들어 오직 하늘에 계신 주를 향하여 간구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소서. 환난 중에 믿음을 잃지 않는 교회를 통해 이 나라가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 인도네시아, 파푸아서 부족간 폭력 사태로 13명 사망… 1,000명 대피

인도네시아 동부 뉴기니섬 파푸아 지역에서 두 부족 간 유혈 충돌이 발생해 최소 13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야위자야 와메나 지역에서 라니족과 후블라족이 화살과 흉기를 사용해 서로 공격했으며, 차량과 오토바이 80여 대에 불을 질렀다. 주택 177채와 상가·학교·마을 사무소도 불에 타 약 1천 명이 교회와 군·경찰 시설 등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로 피신했다. 이번 사태는 2024년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배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후블라족은 라니족 출신 의원 사망에 대한 배상으로 거액의 돈과 돼지 30마리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합의 이행 문제로 갈등이 재점화됐다. 여기에 충돌 과정에서 라니족 주민 37명이 강을 건너다 다리가 무너지는 사고까지 발생해 24명이 숨지면서 긴장이 더욱 격화됐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현재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추가 충돌 가능성이 대비해 보안 병력을 계속 배치하고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에베소서 4:31-32)

하나님, 두 부족 간에 유혈 충돌이 발생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충돌이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곳곳에 피신한 자들을 친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우리가 다스릴 수 없음을 인정하며 노함과 분냄과 모든 악의를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 복음을 이들에게 들려주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용서하신 그 깊은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국제 미전도종족의 날’, 오순절 맞아 전 세계 기도운동 전개



‘국제 미전도종족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Unreached)이 오는 5월 24일 오순절 주일을 맞아 열린다. 이에 따라 여러 기독교 선교단체들은 전 세계 교회와 성도들에게 미전도종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국제 미전도종족의 날은 전 세계 약 7천 개의 미전도종족 집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전도종족은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토착교회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번 캠페인에는 선교 네트워크 단체인 ‘미시오 넥서스’(Missio Nexus)와 ‘서드 오브 어스 얼라이언스’(Third of Us Alliance)가 참여해 다양한 자료와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조슈아 프로젝트(Joshua Project)가 개발한 디지털 기도 지도 ‘라이트 더 네이션스’(Light the Nations)다. 이 온라인 지도는 사용자가 특정 미전도종족을 선택해 기도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기도가 등록될 때마다 지도 위 해당 지역이 밝게 표시된다.

또한 참가자들을 세계 주요 종교권별로 안내하는 7일 기도 가이드도 제공된다. 이 자료는 오순절 주일뿐 아니라 연중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주최 측은 5월 24일 당일 각 교회와 공동체가 가장 복음이 닿지 않은 민족들을 위한 ‘기도 콘서트’를 열 것을 권장하고 있다. 미시오 넥서스는 같은 날 저녁 줌(Zoom)을 통해 온라인 기도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예배와 교육을 위한 다양한 자료가 제공된다. 여기에는 오순절 주일 설교 개요, 7일간의 ‘오순절 여정’ 기도 자료, 이른바 ‘미완성 과업’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 소그룹 토론 가이드, 청소년 프로그램 활동 자료 등이 포함된다.

주최 측은 SNS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서드 오브 어스’(Third of Us) 상징이 담긴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거나, 일부는 손에 해당 상징을 그린 뒤 사진을 올리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운로드 가능한 포스터와 홍보용 자료도 제공된다.

한편 미시오 넥서스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각 교회가 ‘프런티어 피플 그룹’을 공식적으로 후원하거나 입양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는 복음주의 교회의 존재가 가장 적고 선교적 접근이 가장 어려운 미전도종족을 의미한다.

관련 입양 프로그램은 조슈아 프로젝트를 통해 진행되며, 교회들은 ‘서드 오브 어스’ 연합을 통해 선교 기관 및 현지 교회와 연결될 수 있다. 이 연합은 복음이 가장 적게 전해진 지역을 중심으로 협력 사역을 추진하고 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요한 계시록 7:9-10)

하나님, 영혼의 참 기쁜 소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수많은 미전도종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기도운동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선교완성을 향한 마지막 과업을 위해 전 세계의 교회와 선교단체가 온 마음 다하여 이 기도에 동참하게 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양 앞에 서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게 될 그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볼리비아, 반정부시위 격화... 생필품 가격 폭등·은행 영업 중단

볼리비아에서 자유주의 성향의 우파 정부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며 국가 혼란이 커지고 있다. 시위대의 무기한 도로 봉쇄로 전국 주요 간선도로 60여 곳이 마비됐고, 수도 라파스로 들어가는 핵심 물류망까지 차단되면서 식량과 연료 공급이 중단됐다. 닭고기와 채소, 과일 가격은 급등했고 일부 생필품은 돈이 있어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경찰관들이 다쳤으며, 약탈 우려 속에 시내 주요 은행들도 영업을 중단했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원주민 공동체 토지를 시장경제에 편입하려는 '법률 제1720호'를 추진하면서 촉발됐다. 정부는 거센 반발에 법안을 철회했지만, 시위는 정권 퇴진 요구로 확산됐다. 교사·광부·운송노조까지 가세하며 반정부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좌파 세력과 농민 단체들도 결집하고 있다. 이에 볼리비아 가톨릭교회와 인권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와 시위 주도 단체들이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혹 내가 하늘을 달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역대하 7:13-14)

하나님, 볼리비아 정부를 향한 반정부시위대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상황 앞에 주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하늘을 달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는 까닭은 우리의 교만해진 마음을 낮추시고 목마름으로 주를 찾게 하고자 하심임을 믿습니다. 볼리비아의 영혼들이 좌우 진영의 문제를 떠나 하나님을 떠났던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십자가 복음 앞에 나아가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 이 위기의 때가 볼리비아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시며 회복하실 때임을 믿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 온두라스 하루 새 연쇄 총격... 경찰 포함 최소 25명 사망

온두라스에서 하루 사이 두 건의 대형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관들을 포함해 최소 25명이 숨지면서 중남미 지역 범죄조직의 폭력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북부 콜론주 트루히요의 한 야자 농장에서 무장 괴한들이 총기를 난사해 노동자 최소 19명이 사망했다. 당국은 해당 지역이 오랫동안 토지 분쟁과 마약 밀매 통로를 둘러싼 범죄조직들의 충돌이 이어져 온 곳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과테말라 국경 인근 코르테스주 오모아에서는 갱단-마약조직 소탕 작전에 나섰던 경찰 차량이 매복 공격을 받아 경찰관 6명이 숨졌다. 현지 언론과 외신들은 이번 공격이 조직범죄 세력과 연관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온두라스 정부는 군과 경찰을 추가 배치하고 특별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배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출처: 기도24:365본부).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며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허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시편 51:13-14)

하나님, 온두라스에서 발생한 총격사고로 25명이 사망한 소식 앞에 주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총격사건 배후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드러내어 주시고, 죄를 도구삼아 사람들을 조장하는 사탄의 모든 간계를 파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사랑으로 이 땅의 범죄조직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 주사 사람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서로 힘을 합쳐 악을 행하는 죄에서 떠나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을 이루어 주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폭력과 범죄로 물든 땅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의를 높이며 노래하는 나라되게 하옵소서.